

트럼프, 4주년 앞둔 우크라이나 종전 불씨 살리나

젤렌스키와 정상회담·푸틴과 통화...3자회담 기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돈바스 영토 문제 등 최종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종전안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개전 4주년(내년 2월 24일)을 앞두고 휴전 협상에 중대 돌파구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3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재로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돈바스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종전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논의가 정말로 잘 진행된다면”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협상 진척도와 관련해 ‘95%’라는 수치를 언급하며 “(종전이) 성사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매우 가까이 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과 돈바스 영토 문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돈바스 영토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합의에) 더 많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안보와 관련해선 “유럽과 함께 협력하고 싶다”며 “유럽이 그 역할의 큰 부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러시아가 도움을 줄지에 대해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성공에 대해 반대하다”며 “러시아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푸틴 대통령이 협조적이라고 소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안보 보장은 100% 합의됐으며,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간 안보 보장 문제가 거의 합의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 푸틴 대통령과 2시간 넘게 통화했다면서 매우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회담 뒤에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월, 현재는 20개항으로 축약된 28개항의 평화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양자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가들과 종전안을 조율해왔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 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분위기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두 가지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있다”며 “이건 하루짜리 협상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

라고 말했다.

남아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러시아로서는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돈바스 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가 향후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할 마지막 노선이 라고 보고 있어 양측간의 입장차는 여전히 한 듯 보인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한 상태다.

연합뉴스

‘250명 탑승’ 멕시코 열차 탈선 13명 사망·98명 부상 발생

멕시코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개통한 철도 노선에서 28일(현지시간) 여객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멕시코 해군(SEMAR)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태우안테페 지협을 통과하는 철도 Z노선에서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탑승자 지원과 복구를 위해 현지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객 241명과 승무원 9명을 태운 해당 기차는 이날 아침 오악사카(외하카) 주(州) 살리나크루스를 출발해 베라크루스 주 코야트스코알코스로 향하던 중 오악사카 니산타 마을 인근에서 철로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철로를 이탈해 멈춰선 객차에서 승객들이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공유됐다.

사고 초기에는 피해 규모가 ‘부상자 10명 안팎’으로 보고됐으나, 당국의 추후 사실관계 파악을 거쳐 사상자 수는 1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멕시코 해군은 이날 오후 6시께 낸 보도자료에서 “유감스럽게도 13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상자는 98명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3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엑스에 같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내무부와 해군에 유족을 살피도록 지시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